

4-12개월 영아의 성장발육 상태

구재옥 · 최경숙 한국방송대학교 가정학과, 대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Growth status of 4-12 months Korean infants. Jaeok Koo and Kyungsuk Choi,
Dept. of Home Economics, Korean National Open University, and Dept. of Food and
Nutrition, Daejin University

영아기는 일생을 통하여 태아기 다음으로 두뇌를 비롯한 신체 모든 조직의 성장과 발육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며, 향후 아동기 영양과 지적발달 및 성인기의 건강과 체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이며, 식습관의 기본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영아들의 성장발육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이들의 영양교육 자료의 개발과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영아들의 성장발육상태를 파악하고자 보건소와 소아과에 내방한 영아(4~12개월) 63명(남아34명, 여아 29명)을 대상으로 체중, 신장, 두위, 흉위, 상완위, 삼두박근 피하지방두께 등의 신체계측을 실시하여 최근 발표된 소아발육표준치(소아과, 1998)와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영아들의 출생시 체중은 남아는 $3.3 \pm 0.4\text{kg}$, 여아는 $3.2 \pm 0.3\text{kg}$ 으로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 출생시 체중을 표준치와 비교해보면 97.3%였다. 출생시 신장은 남아는 $51.0 \pm 2.5\text{cm}$, 여아는 $49.8 \pm 2.1\text{cm}$ 로 남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표준치 대비 99.8%로 출생시에는 체중보다 신장의 발육상태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들의 체중은 4~6개월에 $7.7 \pm 0.8\text{kg}$, 7~9개월에 $9.0 \pm 1.0\text{kg}$, 10~12개월에 $10.0 \pm 1.2\text{kg}$ 으로 9개월까지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가 10~12개월에는 남아의 체중이 여아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았다($p<0.05$). 표준치에 대한 체중의 비는 4~6개월, 7~9개월에서는 남아보다 여아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10~12개월에는 남아의 비율이 여아보다 높아졌다. 신장은 4~6개월, 7~9개월, 10~12개월에 각각 $66.2 \pm 3.2\text{cm}$, $72.5 \pm 2.6\text{cm}$, $77.0 \pm 3.8\text{cm}$ 였으며, 남녀의 차이가 없었다. 표준치에 대한 신장의 비율은 전체 평균 100.4%로 7~9개월의 여아에서 신장의 표준치에 대한 비율이 다른 월령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영아의 두위는 남아는 $44.8 \pm 1.9\text{cm}$, 여아는 $43.4 \pm 1.2\text{cm}$ 로 4~6개월과 10~12개월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표준치에 대한 두위의 비율은 100.3%로 월령이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영아들의 흉위는 남아는 $46.4 \pm 2.1\text{cm}$, 여아는 $44.9 \pm 2.0\text{cm}$ 로 두위와 같이 4~6개월과 10~12개월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5$). 표준치에 대한 흉위의 비율은 102.3%로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 7~9개월 여아의 흉위 비율이 4~6개월, 10~12개월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상완위는 4~6개월에는 $14.8 \pm 1.0\text{cm}$, 7~9개월에는 $15.6 \pm 0.9\text{cm}$, 10~12개월에는 $16.1 \pm 1.0\text{cm}$ 로 나타나 10~12개월에는 여아에 비해 남아가 유의하게 높았다. 삼두박근 피하지방두께는 남아 $12.8 \pm 2.6\text{cm}$, 여아 $12.3 \pm 2.2\text{cm}$ 로 월령,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영아들의 kaup지수의 평균은 17.2 ± 1.6 으로 월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4~6개월, 7~9개월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10~12개월에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조사결과 4~12개월 영아의 성장발육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 두위, 흉위, 상완위 등의 신체계측치는 9개월까지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 10~12개월에는 남아의 발육상태가 여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성장발육 상태는 영유아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로서 이용될 것이며, 10개월이후 남녀간의 성장 차이가 그이후에도 지속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